

## 돼지 사육두수 사상 최대, 지속적 인 증가세

### - 9월 1일 현재 928만7천두 사상 최고

2003년 9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가 사상 최대인 928만7천두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03년 9월 가축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1일 현재 전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928만7천두로 전분기 9,05만1천두에 비해 2.6%(23만6천두), 전년 동월 903만3천두 대비 2.8%(25만4천두)가 각각 늘어나면서 사상최고를 나타냈다. 특히 이 가운데 모돈은 전분기(98만4천두) 대비 0.3%, 지난해 동기(95만6천두) 대비 3.3%가 각각 증가한 98만8천두로 조사됐다.

9월의 돼지 사육두수는 2002년 최초로 9백만두를 넘어선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로 들어오면서 다시 9백만두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것이다.

돼지 사육두수는 규모에 관계 없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육 가구수는 1만 5,417호로 전분기보다 0.5%(80호)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보다는 9.4%(1,460호)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돼지 값 바닥 찍고 회복세 전망

10월 15일 현재 전국의 돼지 지육가격 경락 가격은 출하물량 증가와 시중에 소비부진이 맞물리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월초 1,800원~2,000원대를 오가며 등락을 거듭했으나 이후 출하물량 증가가 계속되는 데다 소비 부진이 심화되면서 폭락세를 기록해 10월 13일에는 1,800원대마저 맥없이 무너져 1,766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돈가 폭락에도 산지에 돼지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인해 오히려 출하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불황이 장기화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11월 정도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양돈농가들은 조급한 마음을 잠시 접고 정상적인 출하를 하면서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일 것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소비홍보와 일선업소에 소비자 가격 하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축산국 존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중대한 사안”

### - 축단협, 이양희 국회 농해위원장 초청 간담회 서주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2일 이양희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갖고 축산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양희 국회농해위원장은 축산단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산관련단체장들은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축산국을 폐지하려는 정부방침은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축산국이 존치돼야 함을 주장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축산국이 없게 되면 축산행정을 도저히 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만큼 축산국의 확대 내지는 존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은 기능별로 하겠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반드시 기능별로의 개편이 좋은 것인지는 외국의 예와 우리나라 농촌 실정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 9월 돼지고기 수입량 다시 증가세

지난 7월과 8월 감소세를 보이던 돼지고기 수입량이 9월 들어 늘어났다. 최근 농림부는 9월 돈육 수입량이 5천91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4천753톤)에 비해 7.1%, 전달(4천472톤) 대비 13.8%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

나 8월말 현재 돈육 수입량은 4만8천114톤으로 지난해 동기간 5만7천741톤보다 16.7%가 감소했었다.

국내 돼지 값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11월부터 국내 돈가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데다 일본의 긴급관세부과(SG)로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돈육 물량이 일부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4,472톤으로 지난 6월 6,497톤을 기점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세를 보여 왔었다.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 - 농림부,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개정, 고시

앞으로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인 경우와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 9월 24일 최근 경북 상주, 충남 당진의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추가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을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미실시 한 농가의 경우 항체양성률 80% 미만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며, 과태료 금액은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금액과 사육규모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최고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의무를 위반하거나 예방접종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육규모별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와는 별개로 적

용한다.

## 울산 울주·경북 경주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농림부는 지난 10월 10일 울산 울주, 11일 경북 경주의 양돈농장 2곳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됐으며, 이들 농장주가 최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한 새끼돼지가 야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3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양돈농가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채 돼지를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 8월 경북 상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3건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이모(47)씨의 돼지 45마리에 대한 채혈 검사 결과, 25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282마리를 살(殺) 처분하고 이 농가 및 반경 3km 농가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시는 돼지를 사육하는 이씨가 지난 8월20일~9월22일 사이 영덕군과 경주 외동읍 중간상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했다고 밝힘에 따라 돼지 구입처 추적을 비롯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돼지 입식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필히 확인토록 농가 방역의식 고취 교육을 지속 실시함과 혈청검사 강화, 항체가 높은 모돈의 도태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다시 돼지콜레라가 재발이 됨으로써 지역 일부에서 예방접종·소독 및 차단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 9월7일 발표한 '돼지콜레라 재발방지 종합대

책'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으며, 9월 중 혈청검사 성적을 분석하여 예방접종 항체가 80% 이하인 시·군을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 축사면적 300㎡ 이상 농가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의무화

### -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규칙' 공포

돈사 등 축사면적이 300㎡ 이상인 축산농가의 경우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돈사 등 축사면적이 300㎡ 이상인 축산농가들은 3개월 이내 농장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300㎡ 이상 1,000㎡ 미만의 축사의 경우 농장 여건에 따라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300㎡ 미만의 축사는 소독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구제역,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등 각종종별 주요 질병의 발생여부와 예방접종률, 농장별 방역 및 위생관리 등에 따라 농장단위 또는 마을단위별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여 농가 자율방역 의식 고취 및 방역체계 개선 등 자체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5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의 축산관련단체로부터 방역교육을 받도록 했다.

## “후보돈 분양과정서 돼지콜레라 전파”

### - 2003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결과 최종 결론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65건의 돼지콜레라는 경기도 김포 소재 상원축산(제1농장)의 후보돈 분양과정을 통해 전파됐고, 8월에 발생한 3건의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와 검역원은 지난 10일 역학조사위원회 돼지콜레라 분과위원회(위원장 안수환박사) 등에서 실시한 현지조사와 8차례의 역학조사 결과 이같이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역원은 상원축산(제1농장)과 위탁농장의 사양관리 기록, 이 농장에서 돼지를 분양받은 농장과 역학관계, 정밀 검사 및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에 추가 발생한 3건의 돼지콜레라는 기존의 오염지역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를 구입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역학조사위원회에서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해 건의한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강화 등 방역권고 사항을 토대로 '돼지콜레라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지도·홍보, 돼지입식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철저, 혈청검사 강화, 항체가 높은 모돈 도태 유도, 방역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분 강화,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예방접종률이 부진한 시·군에 대

한 전문지 공표 등이 포함돼 있다.

농림부와 역학조사위원회는 돼지콜레라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방역의식인 만큼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예방접종·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병성감정 의뢰시도 수수료 부과 예정

### - 농림부, 혈청검사·검역수수료 규칙중개정령(안)마련

앞으로는 가축의 혈청검사 및 검역신청시에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가축의 병성감정 및 동물약품 시험·분석 의뢰시에도 납부해야 된다. 그러나 농가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신고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안에 따르면 가축의 부검, 혈액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 병성감정 및 동물용의약품의 효능, 안전성, 독성 등 시험·분석의뢰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부검 2천원~4만원, 혈액검사 3천원, 혈청화학검사 1만원,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2천원, 분변내 기생충 검사 3천원, 병리조직검사 5천원, 전자현미경 검사 5천원, 유산관련 질병검사 3만원 등으로 정했다.

또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혈청검사 또는 검역 이외에 병성감정 및 시험·분석의뢰를 추가했다.

## 양돈농가 10명중 7명 톤당 분뇨처리비용 1만원 이상 지출

국내 양돈농가 10명중 7명 정도가 톤당 분뇨처리비용을 1만1천원 이상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가 지난 9월1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귀 농장의 분뇨처리 비용은 톤당 평균 얼마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총 518명이 응답한 결과 △1만4천~1만7천원 26.8% △1만1천~1만4천원 23.6% △1만7천원 이상 18.1% △8천~1만1천원 16.6% △5천~8천원 8.3% △5천원 미만 6.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국내의 양돈농가 68.5% 이상이 톤당 분뇨처리비용을 1만1천원 이상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양돈농가들은 양돈업에 종사하면서 분뇨처리를 가장 어렵게 여기는 가운데 분뇨처리 비용이 농장경영에 미치는 비중이 높아 정부의 정책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본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고 총리, 농민의 의견과 요구 적극 반영

### - "농업개방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

고 건(高建)국무총리는 지난 10월 13일 저녁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농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농촌 장기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농업개방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사실상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농업 경영의 규모화, 탈농·재촌(在村) 지원대책, 교육·의료·문화·복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업 문제는 경제 논리가 아닌 식량 주권과 안보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농업예산 10% 인상 공약과 더불어 ▲농가부채 해소대책 수립과 농업직불제 보완 ▲우수학생 교육비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협동조합 개혁 ▲2ha이상 병해피해 농가에 대한 위로금 지급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

## "검역청 신설 안되면 축산국 유지"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지난 9월 19일 축산국을 합부로 없애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현재의 품목중심에서 기능중심과 소비자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지를 보다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축산물검사검역청이 신설되지 않을 경우 축산국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이방호의원(한나라, 경남사천)으로부터 축산국이 농업에서 2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커가고 있는 마당에 축산국을 없애겠다는 발상을 함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축산국을 합부로 없애겠다는 발상을 재고하라는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변했다.

### 정육점도 축산물 HACCP 인증 도입

일반 소비자들이 찾는 정육점도 일정 기준을 갖추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업소로 인증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축산물의 경우 도축장과 가공처리장에 한해 지정하는 HACCP 인증제 대상이 확대돼 보관, 운반, 판매업소가 희망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인증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정육점의 축산물 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HACCP 기준과 업소내 표시요령을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 검역원, PED·TGE 동시 예방 백신 개발

돼지유행성설사병(PED)과 전염성위장염(TGE) 예방 백신이 향후 2~3년 내로 실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99년부터 3년간 연구 끝에 설사병과 위장염을 예방할 수 있는 혼합 불활화 백신을 개발, 예방약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고 했다. 이로써 양돈농가들은 설사병과 위장염 공포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혼합불활화 백신은 분만하기 5~7주전과 2~3주전에 2차 접종함으로써 초유를 통해 이 질병을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전달, 설사로 인한 폐사율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중부전 기존 이들 질병의 예방 백신을 접종한 다음 분만 모돈에 개발된 백신을 접종

할 경우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검역원은 밝혔다.

### 8월 도축실적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

지난 8월 돼지 도축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6% 소폭 감소한 반면, 전월에 비해서는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최근 발표한 8월 돼지도축실적에 따르면, 123만 3,340두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6%(8만 6,517두) 감소한 반면, 전월에 비해서는 3.4%(4만1,057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컷의 경우 61만544두, 암컷의 경우 62만2,796두로 전년 동기 대비 8.5%(5만6,450두), 4.6%(3만67두) 각각 감소한 반면, 전월 대비 3.8%(2만2,194두), 3.1%(1만8,863두)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도체 중은 암컷은 108kg, 수컷은 106kg으로 평균 107kg을 나타냈다.

###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 8월 현재 87.1%

8월 현재 전국의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이 8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이 2003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실시한 전국의 각 시·도별 돼지콜레라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에 의하면 8월 현재 전국의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이 87.1%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비육돈 85%, 번식돈 93%, 자돈 66.9%로 나타나 번식돈에 대한 항체 양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농림부, 양돈방역 순회교육 실시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접종·방역요령 및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설명 등 가축 방역정책 교육·홍보를 통한 양돈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코자 지난 10월 17일(금) 수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중부권), 20일(월) 대구 경북도 농업기술원(영남권), 21(화) 담양 농업기술센터(호남권)에서 양돈농가 각 150명씩을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대책” “돼지콜레라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요령”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경남도, 돼지가격 안정대책 발표

### - 수해복구지원 군부대 등에 돼지고기 위문품 전달

경남도는 최근 돼지사육두수가 1,094천두로 도내 적정사육두수 80만두보다 36%(294천두) 초과, 계절적 비수기와 경기침체가 겹쳐 양돈산업의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에서는 식육판매업소, 음식점, 육가공업체의 소매가격 인하 지도를 통해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기하고, 고품질 돼지고기 소비기간 구축에 따른 육가공업체 시설자금을 2개소에 15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일본 수출 중단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와 수입육과의 경쟁차원에서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으로 내년도에 도체 A등급을 받는 돼지 마리당 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태풍 “매미” 내습으로 가축 3만5천마리와 축사 1,835동 등 21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지원과 폐사가축 매몰작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군인과 경찰을 격려, 위로하기 위하여 돼지 146마리분인 7,300kg의 돼지고기를 김해시 진영읍 소재 (주)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회장 김기용)로부터 기증받아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도내 39사단을 비롯한 8개 군부대와 경찰관서에 전달하였다.

## 제주도, 캐나다산 종돈 수입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캐나다산 종돈 60마리를 도입, 교배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종돈을 생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제주축산진흥원은 검역절차를 거쳐 12월께 축산진흥원에 들여와 사육할 예정이며 교배를 통해 생산한 종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것을 내년 말께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축산진흥원은 지난 2000년 607마리, 2001년 743마리, 2002년 926마리, 올 상반기에 611마리의 종돈을 농가에 공급했다.

## 남제주, 양돈장 악취방지사업 착수

제주도 남제주군이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양돈장 악취방지사업에 착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제주군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축산발전기금 1억원 등 모두 1억6천200만원을 투입,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한국냄새환경학회(회장 강원대 박상진교

수)가 용역을 맡은 이 사업은 표선면 가시리에서 1천300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관흡농장에 연말까지 각종 탈취시설을 설치한 뒤 악취 저감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남제주지역에는 98개 양돈장에 돼지 12만6천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 제2회 축산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대 성황'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가 개최한 '제2회 축산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축산인, 학계, 기관·단체 관계자들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친환경 축산 발전과제와 대책'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이양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최영호 한나라당 농림해양 전문위원, 박창정 한국마사회장, 각 축산단체장 등 내빈과, 축산인 및 축산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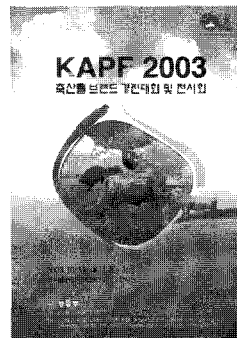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의 친환경 축산 정책 설명에 잇달아, 친환경 축산을 위한 정책과제, 기술체계 확립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각 주제별 발표마다 지정토론자의 토론시간과 최종 종합토론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한편 주제발표를 한 김창길 박사는 "효과적인 가축분뇨관리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지원 확대와 함께 관련분야의 연구를 전담할 연구인력의 보강 및 산학연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상집 강원대 교수는 "친환경 유기 축산을 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기술이 확립돼야 한다"며 "양축가, 사료제조업자, 축산물 도축 및 유통관련자, 축산정책 담당자 등 관련 당사자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0월 31일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팡파르'

- 10.31(금)~11.2(일), aT(서울농업무역)센터 제1·2전시관에서



농림부 주최, 축단체·농협중앙회가 공동 주관하고, 본회 등이 후원하는 "2003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2일(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aT(서울농업무역)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시상,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대형유통업체 임원초청 오찬 간담회, 최고급 한우고기 전시, 고급육 생산능가 표창 등이 있을 예정이며, 전시회에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수상 브랜드 업체 등이 참가해 전시회를 수놓을 예정이다. **양돈**